

APEC국가간 언어의 투자 결정요인 분석

션즈핑^a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태인^b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The Language Determinant Analysis of Investment Among APEC Member Economies

Zhi-Feng Shen^a, Tae-In Kim^b

^aPh.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8 June 2016, Revised 20 June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ways of how languages are used as determination factors for investment decisions among Asian countries where used languages ar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language segmentation of the investing country increases investment whereas the language segmentation of the invested countries is analyzed as the decreasing factor of investment.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further the linguistic distance between the investing country and the invested country the more investment increases. In the aspects of approached language distance and investment time selection, along with the increased linguistic distance, the elasticity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pprehended to be more flexible than other forms of investment. Such result shows the more segmented the languages of the targeted invested country the more investment cost will increase and therefore the results in linguistic distance can be explained as diversification of the invested country and the result to the forming of bridgehead at the invested area.

Keywords: Language, Investment, Gravity Model, Distance

JEL Classifications: F14, F18, F21

I.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6월, 국제통상의 산업과 연계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정부의 신

통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존 외교부를 통한 통상정책 주도 방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부서를 이관하고, 향후 세계 통상의 질서에서 경제적 지리를 넓히고자 하였다(산업통

^a First Author, E-mail: shenzhifeng@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tikim@kangwon.ac.kr

© 2016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상자원부 2013). 로드맵에서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추진을 위한 신흥국의 개발 및 협력수요를 부응 방식의 FTA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은 ASEAN+3 및 RCEP, TPP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초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 다양하게 경제동반자 협정 및 무역협정을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12월 초에 정부는 사실상 한-호주 FTA협정이 타결되었음을 밝혔고, 그에 앞서 11월 말에는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관심표명을 하였으며, 2013년 11월 동경에서 열린 한국-중국간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모달리티(Modality)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듯 한국은 최근 들어 양자간 경제 지형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거대 시장 체제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통합체제로의 통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정 중 한국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협정 중의 하나는 TPP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상당수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의 회원이다. 그만큼 APEC은 경제통합을 위한 강제성은 약하여 경제 공동체로서의 영향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그리고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의 범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APEC회원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투자의 결정요인을 언어 거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언어의 분화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U(European Union)을 대표로 하는 유럽의 경제통합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경제협력 논의인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는 유사 언어군에서 분파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시아태평양지역보다 크지 않다. 이는 동일 언어군에서 분파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간의 투자 및 경제통합은 언어가 투자 유형을 결정지을 만큼 한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언어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언어가 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투자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경제통합을 위한 언어적 관점에서의 유의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및 연구 주제

국가간 비교 경영 및 비교 경제 연구에서 언어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외국어의 습득 과정에서 소위 언어의 거리(Linguistic Distance)로 불리우는 언어간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유창성(Fluency)의 차이를 발견하려는 노력부터(Kim and Lee 2010; Snow 1998; Chiswick and Miller 2005), 다국적 기업이 언어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국적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따른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arner R, and Aarnio 2011; Harzing and Feely 2008; Andersen and Rasmussen 2004).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다국적기업의 합병 및 해외지사 설립 시에 기업관리의 편의를 위하여서 기업언어(Corporation Language)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역할과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권력관계(Power Distortion and Relation), 지식전달

(Knowledge Transfer) 및 영향력이다. 이를 다룬 논문들은 그린필드(Green Field)로 대변되는 FDI 및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기업 언어 선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권력관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들 기업언어에 의하여 참여 인적자본으로서의 주체(unit)간, 또는 본사와 지사로 대표되는 투자 주체 간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Vaara et al. 2005; Wright et al. 2001).

이로부터 본 논문은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앞서, 언어의 차이로 인한 시장성 파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언어의 상이성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투자의 규모와 투자 방식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한다. 즉 언어상의 거리(Linguistic Distance)는 해외에 대한 투자의 방식에서 분류되는 해외직접투자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선택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포트폴리오 투자 내에서 채권 투자 및 주식투자에 대한 선택에서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다 시피 경제지역상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통합체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PEC이라 할 수 있다. 물론 EU 또한 다양한(heterogeneous) 언어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지만 언어군의 측면에서는 언어간 연관성이 아시아 대평양지역보다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대규모의 지역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APEC의 21개 회원 경제 주체에 대한 언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양자간 투자가 언어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주식투자(Equity), 장기채권투자(Long-term debt)의 입장에서 언어거리가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Ⅲ. 분석 모형 및 변수

1. 분석모형

APEC은 1989년 창립 당시부터 경제적 강제성이 없는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서 개최된 제 2차 정상 회의에서 선진국 경제 주체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 경제주체¹⁾는 2010년 까지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완료할 것을 합의한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을 발표함으로써 경제통합을 위한 성장을 하였다.²⁾ 보고르 선언 또한 경제적 강제력은 없지만 창립당시부터 느슨하였던 경제적 유기성을 보고르 선언을 통하여 일말의 추진력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고르 선언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보고르 선언을 통하여서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APEC 2010; OECD 2010).

그러므로 본 논문은 APEC 21개 회원경제주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Long-term debt) 및 주식(Equity)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언어거리(Language Distance)가 결정요인으로서 중요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또한 언어군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체로서 영향력이 있는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보고르 선언에 참여한 당초 5개 선진국(Bogor5)에 대한 투자의 성향을 추후 평가함으로써 보고르 선언

1) 경제주체라 명시함은 Chinese Taipei, Hong Kong 등과 같이 국가분류로 나뉘지 않은 경제 단위가 존재함으로 일반적으로 회원국이라 명칭하지 않고, 경제 주체 또는 회원주체라고 명명됨.

2) 보고르 회의에서 의제 설정과 목표 합의에 참여한 당초 5개 선진국(뉴질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페루, 칠레, 홍콩, 한국)로 나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통합으로서의 의의를 언어거리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서 무역의 원인 규명과 패턴을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투자에 대한 분야에 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중력모형의 무역이론에서의 사용은 Tinbergen(1968)에 의하여 개념적으로 소개된 후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Gravity with Gravitas”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Tinbergen에 의한 중력 모형(1)은 다음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한다.

$$Trade = c \cdot \frac{GDP_i \cdot GDP_j}{distance_{ij}} \quad (1)$$

즉, 양국간의 교역은 두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례하며, 지역적인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력 모형을 이용한 모델 (2)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begin{aligned} \ln INVEST_{ijt} = & \ln GDP_{it} + \ln POP_{it} \\ & + \ln GDP_{jt} + \ln POP_{jt} \\ & + area_i + eng_i + wto_{it} \\ & + fta_{ijt} + comlang_off_{ij} \\ & + lang_frac_i + conlony_j \\ & + \ln distw_{ij} + lang_dist_{ij} \\ & + u_i + u_j + u_{it} + u_{jt}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2)$$

i = 투자 본국(APEC 21개 회원 경제 주체)
j = 투자 상대국(APEC 21개 회원 경제 주체)
t = 2000년 ~2010년

$\ln INVEST_{ijt}$ = i국의 j국에 대한 t년도의 투자금액(로그값)

$\ln GDP_{it}$ = i국의 t년도의 GDP (로그값)

$\ln POP_{it}$ = i국의 t년도의 인구수(로그값)

$\ln GDP_{jt}$ = j국의 t년도의 GDP(로그값)

$\ln POP_{jt}$ = j국의 t년도의 인구수(로그값)

$area_i$ = i국의 국가 지형 크기

eng_i = i국의 영어사용 더미

wto_{it} = i의 WTO가입 여부 더미

fta_{ijt} = i국과 j국의 자유무역협정 수립 더미

$comlang_off_{ij}$ = i국과 j국이 공통의 언어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더미

$lang_frac_i$ = i국의 언어 분절화 지수

$lang_frac_j$ = j국의 언어 분절화 지수

$colony_{ij}$ = i국과 j국이 양국간 식민지 경험 이 있는지에 대한 더미

$\ln distw_{ij}$ = i국과 j국의 지리적 거리 (weighted 로그)

$langdist_{ij}$ = i국과 j국의 언어 거리

u_i = i국의 시간 고정(time fixing) 오차항

u_j = j국의 시간고정(time fixing) 오차항

u_{it} = i국의 시간가변(time varying) 오차항

u_{jt} = j국의 시간가변(time varying) 오차항

ε_{ijt} = 오차항

위에서 보여주듯이 각 모델은 오차항에 시간 고정(Time Fixed) 오차항과 시간변동 (Time Varying) 오차항을 포함하게 된다. Anderson and Wincoop(2003)에 의하여 제시된 모델에 의하면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는 양국간의 경제요소 뿐만 아니라 양국을 제외한 Multilateral Resistance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는 양국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양국을 제외한 전체 국가의 무역비용(Multilateral Transaction Cost)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Multilateral Resistance를 통제하지 못하면 누락변수에 의한 오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모델이 년도 변수를 삽입하도록 한다.

또한 본 모델은 시간 고정오차항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간 고정 오차항에 포함된 모델에 계상되지 않은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

를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1차분 모형 (First Difference Model)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 1차 차분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면 본 실증분석에서 주요 변수로 사용되는 언어거리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1차 차분모형을 제외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시간변수와 기타 변수 외의 이분산(Heteroskedasticity)에 대한 편의(Bias)를 통제하기 위하여 GLS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Model 1)

$$\begin{aligned} \text{LnFDI}_{ijt} = & \text{LnGDP}_{it} + \text{LnPOP}_{it} \\ & + \text{LnGDP}_{jt} + \text{LnPOP}_{jt} \\ & + \text{area}_i + \text{eng}_i + \text{wto}_{it} \\ & + \text{fta}_{ijt} + \text{comlang_off}_{ij} \\ & + \text{lang_frac}_i + \text{conlony}_j \\ & + \text{Lndistw}_{ij} + \text{lang_dist}_{ij} \\ & + u_i + u_j + u_{it} + u_{jt}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3)$$

(Model 2)

$$\begin{aligned} \text{Lnlngterm}_{ijt} = & \text{LnGDP}_{it} + \text{LnPOP}_{it} \\ & + \text{LnGDP}_{jt} + \text{LnPOP}_{jt} \\ & + \text{area}_i + \text{eng}_i + \text{wto}_{it} \\ & + \text{fta}_{ijt} + \text{comlang_off}_{ij} \\ & + \text{lang_frac}_i + \text{conlony}_j \\ & + \text{Lndistw}_{ij} + \text{lang_dist}_{ij} \\ & + u_i + u_j + u_{it} + u_{jt}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4)$$

(Model 3)

$$\begin{aligned} \text{LnEquity}_{ijt} = & \text{LnGDP}_{it} + \text{LnPOP}_{it} \\ & + \text{LnGDP}_{jt} + \text{LnPOP}_{jt} \\ & + \text{area}_i + \text{eng}_i + \text{wto}_{it} \\ & + \text{fta}_{ijt} + \text{comlang_off}_{ij} \\ & + \text{lang_frac}_i + \text{conlony}_j \\ & + \text{Lndistw}_{ij} + \text{lang_dist}_{ij} \\ & + u_i + u_j + u_{it} + u_{jt} + \varepsilon_{ijt} \end{aligned} \quad (5)$$

2.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종속변수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장기채권투자, 주식투자는 APEC 양자간 데이터베이스(Bilateral Linages Database)에서 추출하였으며, 본국과 거래 대상국의 GDP 및 인구수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추출하였다. 그 외 지형크기, 영어사용여부, 공통언어 사용여부, 식민지여부, 지리적 거리는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 Internationales(CEPII)에서 추출되었다. 여기서 지리적거리는 인구수에 대한 조정값(Weighted Value)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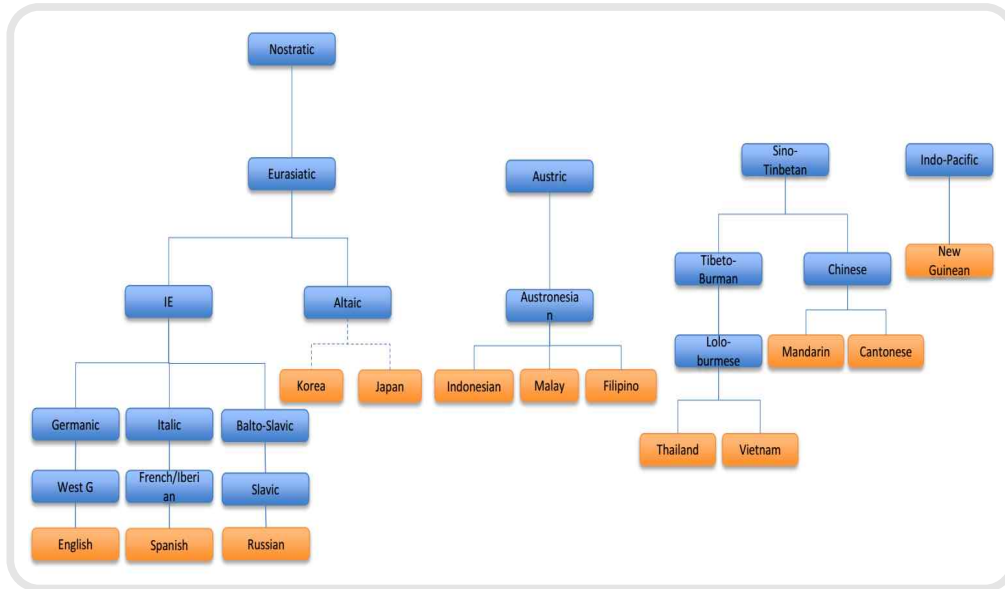
3. 언어거리 측정 방법

〈Table 1〉에 따르면 보이듯이 각 국가의 제1공용어는 미국 중앙정보부(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World Factbook을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언어는, 언어군 면에서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모든 언어에 대한 근원과 언어간 발생 네트워크에 대한 원인 및 언어군 사이의 관계는 아직 학술적으로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투자 형태 분석을 위한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APEC지역에서 사용되는 4개 언어군을 동일 선상에 위치 시켰다.

APEC회원 경제주체들간에 사용되는 언어들의 언어군은 〈Fig. 1〉에서와 같이Eurasitic, Austric, Sino-Tibetan, Indo-Pacific언어군에 속하고 있으며, 각각의 노드별 거리는 1로 산정 하였으며, 언어군과의 거리는 10으로 산정 되었다.

비록 제1공용어로 언어간 거리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아시아태평양에 분포한 국가들은 본국 내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1공용어만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

Fig. 1. Language Family of APEC Economic Units



* Source: Composed by author

Table 1. 1st Official Language and Language Segmentation Ratio Among APEC Member Economic Units.

Country	1st Official Language	Language Segmentation Ration
Australia	English	0.3349
Brunei Darussalam	Malay	0.3438
Canada	English	0.5772
Chile	Spanish	0.1871
China	Mandarin	0.1327
Chinese Taipei	Mandarin	0.5028
Hong Kong, China	Cantonese	0.2128
Indonesia	Indonesia	0.7680
Japan	Japanese	0.0178
Korea	Korean	0.0021
Malaysia	Malay	0.5970
Mexico	Spanish	0.1511
New Zealand	Spanish	0.1657
Papua New Guinea	Tok Pisan	0.3526
Peru	Spanish	0.3358
Russia	Russian	0.2485
Singapore	Mandarin	0.3835
Thailand	Thai	0.6344
The Philippines	Filipino	0.8360
United States	English	0.2514
Viet Nam	Vietnamese	0.2377

* Source: From Alberto et al.(2003) APEC country only sampled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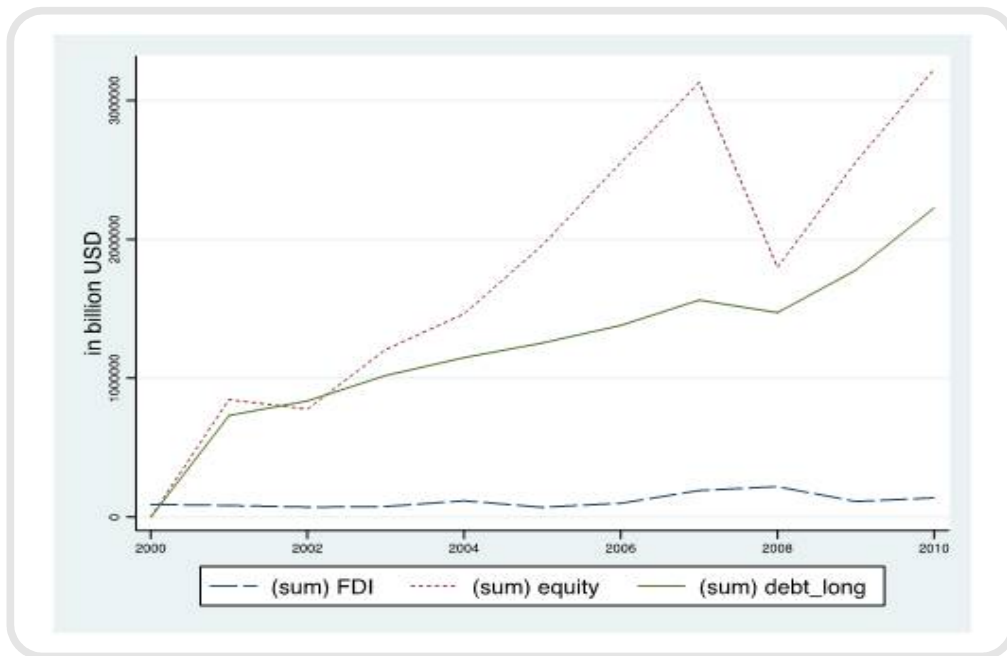
는 모델의 오류(Model misspecification)을 제거하기 위하여 Alberto et al. (2003)에서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국가의 언어의 분절도(Language Fractionalization)를 설명 변수에 추가함으로써 오류를 통제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투자는 형태 면에서 주식(Equity)에 대한

Fig. 2. Yearly Investment Change by Element



* Source: Composed by author

Table 2. Yearly Investment Development by Form of Investment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DI	91,816	84,983	72,658	77,212	118,325	71,395	100,172	191,890	219,962	113,203	139,198
(ratio)	100	5	4	3	4	2	2	4	6	3	2
equity	0	846,650	777,962	1,206,975	1,464,018	1,958,379	2,551,349	3,127,338	1,797,809	2,555,450	3,223,332
(ratio)	0	51	46	52	54	60	63	64	52	57	58
debt_long	0	732,666	836,476	1,019,850	1,148,570	1,254,106	1,380,909	1,562,321	1,472,106	1,776,957	2,224,519
(ratio)	0	44	50	44	42	38	34	32	42	40	40
Total	91,816	1,664,298	1,687,096	2,304,037	2,730,913	3,283,880	4,032,430	4,881,549	3,489,877	4,445,610	5,587,049

* Source: Composed by author

투자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투자이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가 10% 미만으로 가장 적은 투자의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Table 2). <Fig. 2>에 따르면 투자형태별 연간추이에서 보여주듯이 주식과 장기채권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 절대량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보고르 그룹별 기술통계

본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인 보고르 그룹간의 투자의 형태를 분석했을 시 보고르5간 투자가 장기 채권에서는 74.6%로 주식투자에서는 63.3%로,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60.1%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Table 3). 장기채권에서는 보고르5의 보고르8로의 투자가, 주식투자에서는 보고르8의 보고르5로

Table 3. Forms of Investment Among Bogor Groups

Partner	Home	Long Term Debt		Equity		FDI outflows	
		(in billion)	%	(in billion)	%	(in billion)	%
Bogor5	Bogor5	9,996,328.0	74.6	12,345,687.0	63.3	769,827.9	60.1
	Bogor8	1,601,743.0	11.9	1,049,781.4	5.4	27,066.5	2.1
	others	281,975.9	2.1	95,454.1	0.5	0.0	0.0
	Sub total	11,880,046.9	88.6	13,490,922.5	69.2	796,894.5	62.2
Bogor8	Bogor5	765,730.6	5.7	3,428,069.6	17.6	281,857.2	22.0
	Bogor8	377,866.7	2.8	443,818.0	2.3	16,043.7	1.3
	others	29,525.4	0.2	3,199.0	0.0	0.0	0.0
	Sub total	1,173,122.7	8.7	3,875,086.6	19.9	297,900.9	23.3
others	Bogor5	212,064.1	1.6	1,174,714.5	6.0	151,303.3	11.8
	Bogor8	141,689.7	1.1	967,396.1	5.0	34,717.0	2.7
	others	1,555.9	0.0	1,140.3	0.0	0.0	0.0
	Sub total	355,309.8	2.6	2,143,250.9	11.0	186,020.3	14.5
Total		13,408,479.3	100.0	19,509,260.0	100.0	1,280,815.7	100.0

* Source: Composed by author

Table 4. Investment Among Bogor Groups by Forms of Investment

Home	Partner	Long Term Debt		Equity		FDI outflows		Total	
		(in billion)	%	(in billion)	%	(in billion)	%	(in billion)	%
Bogor5	Bogor5	9,996,328.0	43.3	12,345,687.0	53.4	769,827.9	3.3	23,111,842.9	100.0
	Bogor8	765,730.6	17.1	3,428,069.6	76.6	281,857.2	6.3	4,475,657.3	100.0
	others	212,064.1	13.8	1,174,714.5	76.4	151,303.3	9.8	1,538,081.9	100.0
	Sub total	10,974,122.7	37.7	16,948,471.1	58.2	1,202,988.4	4.1	29,125,582.2	100.0
Bogor8	Bogor5	1,601,743.0	59.8	1,049,781.4	39.2	27,066.5	1.0	2,678,590.9	100.0
	Bogor8	377,866.7	45.1	443,818.0	53.0	16,043.7	1.9	837,728.4	100.0
	others	141,689.7	12.4	967,396.1	84.6	34,717.0	3.0	1,143,802.9	100.0
	Sub total	2,121,299.4	45.5	2,460,995.5	52.8	77,827.3	1.7	4,660,122.2	100.0
others	Bogor5	281,975.9	74.7	95,454.1	25.3	0.0	0.0	377,430.0	100.0
	Bogor8	29,525.4	90.2	3,199.0	9.8	0.0	0.0	32,724.5	100.0
	others	1,555.9	57.7	1,140.3	42.3	0.0	0.0	2,696.2	100.0
	Sub total	313,057.2	75.8	99,793.4	24.2	0.0	0.0	412,850.7	100.0
Total		13,408,479.3	39.2	19,509,260.0	57.0	1,280,815.7	3.7	34,198,555.0	100.0

* Source: Composed by author

Table 5. Economic Indicators Among Bogor Groups

Group	Reporter	Population			GDP			GDP pc		
		1994 (million)	2010 (million)	1994-2010 (annualized growth, %)	1994 (billion)	2010 (billion)	1994-2010 (annualized growth, %)	1994 (USD)	2010 (USD)	1994-2010 (annualized growth, %)
Bogor5	Australia	17.9	22.1	1.3	323.4	1,138.0	8.2	18,113	51,586	6.8
	Canada	29.1	34.1	1.0	564.5	1,577.0	6.6	19,390	46,212	5.6
	Japan	125.0	127.5	0.1	4,850.0	5,495.0	0.8	38,815	43,118	0.7
	New Zealand	3.6	4.4	1.2	54.3	139.8	6.1	14,992	32,000	4.9
	United States	263.1	309.3	1.0	6,993.0	14,420.0	4.6	26,578	46,616	3.6
	Sub-total	438.7	497.4	0.8	12,785.2	22,769.8	3.7	117,888.6	219,530.4	4.0
	Average	87.7	99.5	0.8	2,557.0	4,554.0	3.7	23,577.7	43,906.1	4.0
Bogor8	Chile	14.2	17.2	1.2	55.2	217.3	8.9	3,883	12,671	7.7
	Hong Kong	6.0	7.0	1.0	135.8	228.7	3.3	22,503	32,558	2.3
	Korea, Rep.	44.5	49.4	0.7	423.4	1,015.0	5.6	9,525	20,540	4.9
	Mexico	93.5	117.9	1.5	421.7	1,035.0	5.8	4,508	8,779	4.3
	Malaysia	20.2	28.3	2.1	74.5	246.8	7.8	3,686	8,729	5.5
	Peru	23.5	29.3	1.4	44.9	153.5	8.0	1,910	5,247	6.5
	Singapore	3.4	5.1	2.5	69.2	217.2	7.4	20,249	42,784	4.8
	Taiwan	21.2	23.2	0.6	252.7	430.1	3.4	11,982	18,588	2.8
	Sub-total	226.6	277.3	1.3	1,477.4	3,543.6	5.6	78,246.1	149,896.2	4.1
	Average	28.3	34.7	1.3	184.7	443.0	5.6	9,780.8	18,737.0	4.1
other APEC	Brunei Darussalam	0.3	0.4	2.1	4.1	12.4	7.2	14,223	30,880	5.0
	China	1,192.0	1,338.0	0.7	559.2	5,950.0	15.9	469	4,448	15.1
	Indonesia	191.1	240.7	1.5	176.9	709.3	9.1	926	2,947	7.5
	Philippines	68.1	93.4	2.0	64.1	199.6	7.4	942	2,136	5.3
	Papua New Guinea	4.6	6.9	2.5	5.5	9.5	3.5	1,197	1,382	0.9
	Russian Federation	148.3	142.4	-0.3	395.1	1,525.0	8.8	2,663	10,710	9.1
	Thailand	58.5	66.4	0.8	144.3	318.9	5.1	2,467	4,803	4.3
	Vietnam	70.8	86.9	1.3	16.3	106.4	12.4	230	1,224	11.0
	Sub-total	1,733.6	1,975.1	0.8	1,365.5	8,831.1	12.4	23,117.8	58,529.5	6.0
	Average	216.7	246.9	0.8	170.7	1,103.9	12.4	2,889.7	7,316.2	6.0
APEC	Total	2,398.9	2,749.8	0.9	15,628.0	35,144.5	5.2	219,252.6	427,956.2	4.3
	Average	114.2	130.9	0.9	744.2	1,673.5	5.2	10,440.6	20,378.9	4.3
World	Total	5,614.3	6,885.2	1.3	26,868.0	63,508.4	5.5	4,785.6	9,223.9	4.2

* Source: Composed by author

의 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도 보고르8의 보고르5로의 투자가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은 거래대상 그룹이었다. 이로서 투자의 형태를 막론하고 보고르5간 투자와 보고르8로부터 보고르5로의 투자가 80~90%를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 형태와 관계없이 보고르5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보고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보고르5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보고르5간 투자 중 장기채권투자자와 주식투자자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보고르5의 보고르5에 대한 장

기채권투자-43.3%, 보고르5의 보고르5에 대한 주식투자53.4%), 보고르5의 보고르8에 대한 투자나 기타 그룹에 속한 경제 주체에 대한 투자는 공히 76%로, 보고르5가 보고르8에 대하여 투자 선택 시 주식투자를 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이러한 양상은 보고르8이 투자처를 발굴할 때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보고르5나 8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서는 장기채권투자자와 주식투자가 큰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타 그룹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 경우 주식투자를 선호하게 된다(84.6%). 그러나 기타 그룹에 있는 국

가는 보고르 그룹 분류에 관계없이 장기채권 투자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75.8%).

이러한 경향은 보고르 회원간 경제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Table 5> 주식 투자는 1인당 GDP차원에서의 경제지표가 낮은 경제주체에 대한 투자할 경우에 보고르5나 보고르8을 막론하고 선호한다. 주식투자의 경우 안정적 시장의 경우에는 수익의 극대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국가의 경우는 1인당 GDP의 차원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저조한 국가 그룹이다 보니 주식투자과 같이 고소득의 고위험 투자보다는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언어 그룹 별 기술통계

언어 거리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투자의 양상이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형태와 무관하게 Eurasiatic언어군에서 Eurasiatic언어군으로의 투자가 가장 주요한 투자의 방향이다. 장기 채권투자의 경우 Sino-Tibetan과 Eurasiatic간의 투자가 전체 투자의 95%에 해당하였으며, Eurasiatic으로부터 Eurasiatic과 Sino-Tibetan의 투자는 주식투자의 경우 87%,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96%에 해당하였다. Austric언어군과 Sino-Tibetan언어군, Indo-Pacific언어군은 다른 언어군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시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Forms of Investment Among Language Groups

Home	Partner	Long Term Debt		Equity		FDI outflows	
		(in bilion)	%	(in bilion)	%	(in bilion)	%
Eurasiatic	Eurasiatic	10,966,845	82	14,444,503	74	938,215	73
	Austric	169,077	1	266,056	1	47,526	4
	S-Tibetan	165,035	1	2,604,108	13	294,244	23
	IP	1	0	12,842	0	831	0
	Sub total	11,300,958	84	17,327,508	89	1,280,816	100
Austric	Eurasiatic	34,189	0	27,671	0	0	0
	Austric	2,879	0	2,139	0	0	0
	S-Tibetan	9,945	0	31,309	0	0	0
	IP	0	0	193	0	0	0
	Sub total	47,013	0	61,311	0	0	0
S-Tibetan	Eurasiatic	1,762,345	13	968,033	5	0	0
	Austric	134,256	1	104,977	1	0	0
	S-Tibetan	163,625	1	1,047,279	5	0	0
	IP	0	0	78	0	0	0
	Sub total	2,060,225	15	2,120,367	11	0	0
Indo-Pacific	Eurasiatic	284	0	67	0	0	0
	Austric	0	0	7	0	0	0
	S-Tibetan	0	0	0	0	0	0
	Sub total	284	0	74	0	0	0
Total		13,408,480	100	19,509,260	100	1,280,816	100

* Source: Composed by author

Table 7. Economic Indicators Among Language Groups

Language Group	Language	Reporter	Population			GDP			GDP pc			
			1994 (million)	2010 (million)	1994-2010 (annualized growth, %)	1994 (billion)	2010 (billion)	1994-2010 (annualized growth, %)	1994 (USD)	2010 (USD)	1994-2010 (annualized growth, %)	
Austriac	Filipino	Philippines	68.1	93.4	2.0	64.1	199.6	7.4	942	2,136	5.3	
	Indonesia	Indonesia	191.1	240.7	1.5	176.9	709.3	9.1	926	2,947	7.5	
	Malay	Malaysia	20.2	28.3	2.1	74.5	246.8	7.8	3,686	8,729	5.5	
	Malay	Brunei Darussalam	0.3	0.4	2.1	4.1	12.4	7.2	14,223	30,880	5.0	
	Sub Total			279.6	362.8	7.7	319.5	1,168.1	31.4	19,776.7	44,692.3	23.3
	Sub Total/Total(%)			11.7	13.2	32.5	2.0	3.3	22.0	9.1	10.5	19.8
Eurasianic	English	Australia	17.9	22.1	1.3	323.4	1,138.0	8.2	18,113	51,586	6.8	
	English	Canada	29.1	34.1	1.0	564.5	1,577.0	6.6	19,390	46,212	5.6	
	English	United States	263.1	309.3	1.0	6,993.0	14,420.0	4.6	26,578	46,616	3.6	
	Japanese	Japan	125.0	127.5	0.1	4,850.0	5,495.0	0.8	38,815	43,118	0.7	
	Korean	Korea, Rep.	44.5	49.4	0.7	423.4	1,015.0	5.6	9,525	20,540	4.9	
	Russian	Russian Federation	148.3	142.4	-0.3	395.1	1,525.0	8.8	2,663	10,710	9.1	
	Spanish	New Zealand	3.6	4.4	1.2	54.3	139.8	6.1	14,992	32,000	4.9	
	Spanish	Chile	14.2	17.2	1.2	55.2	217.3	8.9	3,883	12,671	7.7	
	Spanish	Mexico	93.5	117.9	1.5	421.7	1,035.0	5.8	4,508	8,779	4.3	
	Spanish	Peru	23.5	29.3	1.4	44.9	153.5	8.0	1,910	5,247	6.5	
	Sub Total			762.7	853.5	9.1	14,125.4	26,715.6	63.4	140,378.9	277,477.0	53.9
Sub Total/Total(%)			31.9	31.1	38.5	90.4	76.0	44.6	64.4	65.0	45.9	
Indo-Pacific	Tok Pisan	Papua New Guinea	4.6	6.9	2.5	5.5	9.5	3.5	1,197	1,382	0.9	
	Sub Total		4.6	6.9	2.5	5.5	9.5	3.5	1,197.3	1,382.1	0.9	
	Sub Total/Total(%)			0.2	0.3	10.7	0.0	0.0	2.4	0.5	0.3	0.8
Sino-Tibetan	Cantonese	Hong Kong	6.0	7.0	1.0	135.8	228.7	3.3	22,503	32,558	2.3	
	Mandarin	Singapore	3.4	5.1	2.5	69.2	217.2	7.4	20,249	42,784	4.8	
	Mandarin	Taiwan	21.2	23.2	0.6	252.7	430.1	3.4	11,982	18,588	2.8	
	Mandarin	China	1,192.0	1,338.0	0.7	559.2	5,950.0	15.9	469	4,448	15.1	
	Thai	Thailand	58.5	66.4	0.8	144.3	318.9	5.1	2,467	4,803	4.3	
	Vietnamese	Vietnam	70.8	86.9	1.3	16.3	106.4	12.4	230	1,224	11.0	
	Sub Total			1,352.0	1,526.6	6.8	1,177.5	7,251.3	47.6	57,899.7	104,404.6	40.3
	Sub Total/Total(%)			56.5	55.7	29.0	7.5	20.6	33.4	26.6	24.5	34.3
Total			2,394.3	2,742.9	23.6	15,622.5	35,135.0	142.4	218,055.3	426,574.0	117.4	

* Source: Composed by author

이러한 경향은 아래의 국가별 경제지표에서도 보이듯이(Table 7) 21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Eurasiatic언어군에 속하고 있으며, Sino-Tibetan언어군에 속하면서도 1인당 GDP 차원에서 경제력을 확보한 국가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이 도시형국가(Peanut Country)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ustriac 언어 군에 있는 경제주체들도 부르나이를 제외하고는 1인당 GDP면에서 투자를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부르나이 또한 도시형국

가의 형태로 해외투자에 대한 여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1994년 당시 Eurasiatic언어군의 10개국가는 GDP에 대한 설명력을 90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GDP의 경우도 1994년 2010년 모두 60% 중반대의 설명력을 갖는 언어군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투자형태별 언어군간 투자의 분포에 있어서도 Eurasiatic언어군간 투자에서는 장기채권투자와 주식투자의 형태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

Table 8. Investment Among Language Groups by Forms of Investment

Home	Partner	Long Term Debt		Equity		FDI outflows		Total
		(in bilion)	%	(in bilion)	%	(in bilion)	%	
Eurasiatric	Eurasiatric	10,966,845	42	14,444,503	55	938,215	4	26,349,563
	Austric	169,077	35	266,056	55	47,526	10	482,659
	S-Tibetan	165,035	5	2,604,108	85	294,244	10	3,063,386
	IP	1	0	12,842	94	831	6	13,674
Austric	Eurasiatric	34,189	55	27,671	45	0	0	61,859
	Austric	2,879	57	2,139	43	0	0	5,018
	S-Tibetan	9,945	24	31,309	76	0	0	41,253
	IP	0	0	193	100	0	0	193
S-Tibetan	Eurasiatric	1,762,345	65	968,033	35	0	0	2,730,377
	Austric	134,256	56	104,977	44	0	0	239,233
	S-Tibetan	163,625	14	1,047,279	86	0	0	1,210,904
	IP	0	0	78	100	0	0	78
Indo-Pacific	Eurasiatric	284	81	67	19	0	0	351
	Austric	0	0	7	100	0	0	7
	S-Tibetan	0	0	0	0	0	0	0
Total		13,408,480	39	19,509,260	57	1,280,816	4	34,198,556

* Source: Composed by author

는 반면(42%: 55%, 35%: 55%) Eurasiatric언어군으로부터 Sino-Tibetan언어군으로의 투자는 대부분 주식투자의 형태(5%:85%)로 이루어지고 있다(Table 8). 이러한 양상은 Sino-Tibetan언어군에서 Sino-Tibetan언어군으로의 투자의 측면(86%)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본의 출처를 막론하고 투자처에 대한 양상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Sino-Tibetan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4. 회귀 분석

일반적으로 중력모형에서 양자간 무역 및 투자는 양국의 경제 규모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1), (2), (3)모델에 있어서도 통계 방법에 상관없이 양국의 경제규모와 정의 관계(Positive Relationship)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으며, 지리적 거리에 있어서도 음의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

출되어 중력모형을 사용한 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9〉에서 전체 21개 회원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투자 본국의 경제 규모에 따른 투자와의 탄력성(Elasticity)는 외국인직접 투자가 가장 낮았으며, 주식투자가 가장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투자대상국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장기채권 투자가 탄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투자 본국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금원에 대하여 해외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는 성향이 커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다소의 위험부담은 존재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바로 회수되는 투자처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파악된다. 대상국의 경제 규모의 가장 비탄력적인 투자 방식으로 장기채권투자가 도출된 데에는 비록 자금 투자처로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발견하더라도 장기채권과 같이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신용이 중요시 되는 투자의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항은 투자 본국의 언어의 분절화는 해외 직접 투자와 주식 투자의 프로모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GLS 모델의 (1) 과 (3)의 모델에서 보이듯이 투자 본국의 언어 분절화는 해외직접투자자와 주식투자자에 대하여 양(+의 관계가 있다. 이는 투자 본국이 언어에 있어서 분절화를 겪게 된다면 동일 현황에 있는 해외의 시장에 대하여 투자 처로서의 매력을 더욱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투자대상국의 언어분절화는 주식투자자와 채권투자자에 대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상국의 언어분절화는 투자 부적격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와 채권투자자 같이 직접적인 경영권에 대한 책임이 필요 없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 대상국의 언어 분절화가 중요시 여겨지는 결과는 그 원인 파악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Table 10〉에서 BOGOR5의 투자양상은 전체 아시아 국가 대상의 분석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BOGOR5에서도 일반적인 중력 모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권투자의 경우 투자 본국의 언어분절도가 해외 증권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대상국의 언어분절도가 증가할 수록 채권투자 및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BOGOR5의 경우 상대국의 언어분절도 투자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거리 면에서도 BOGOR5는 언어거리가 증가할 수록 증권투자는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시키는 결과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본 논문의 중요변수인 언어 거리와 투자와의 관계에서는 언어거리가 1% 늘어날때 마다 해외직접 투자는 0.26%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장기 채권투자에 있어서도 언어거리가

1% 상승시 마다 0.13% 가량의 증가를 보이는데, 외국인직접투자가 장기채권투자보다 언어 거리에 대한 탄력성이 더 높고,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2형 오류의 결과임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언어거리는 비교경영에서 중요한 개념중에 하나이다. 조직의 결속력 형성 및 지식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접근한 언어거리와 투자시에 선택 양상에서 언어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탄력성은 여타 투자형태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시아 전체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자금 건정성 및 경제체제가 안정된 국가들은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언어거리가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및 제조지역의 확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이 실제 경영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지 또는 현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9. Targeting Entire APEC Member Economic Units

Variable	OLS			Random Effect			GLS		
	(1)	(2)	(3)	(1)	(2)	(3)	(1)	(2)	(3)
lgdp_h	0.828***	1.333***	2.356***	0.828***	1.333***	2.356***	1.107***	1.711***	2.786***
	0.004	0.000	0.000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lpop_h	0.429	-0.780***	-1.619***	0.429	-0.780***	-1.619***	0.147	-0.953***	-1.884***
	0.237	0.000	0.000	0.237	0.000	0.000	0.439	0.000	0.000
lgdp_p	1.036***	0.665***	0.893***	1.036***	0.665***	0.893***	1.030***	0.711***	1.19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pop_p	-0.316	0.425**	-0.007	-0.316	0.425**	-0.007	-0.306***	0.414***	-0.230***
	0.077	0.034	0.971	0.077	0.034	0.971	0.000	0.000	0.000
area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570	0.552	0.369	0.570	0.552	0.369	0.766	0.000	0.134
eng	0.752	1.718***	0.658	0.752	1.718***	0.658	0.914***	1.923***	0.958***
	0.111	0.000	0.106	0.111	0.000	0.106	0.000	0.000	0.000
wto_h	(omitted)	1.655***	-0.355	(omitted)	1.655***	-0.355	-20.585	2.381***	0.896***
	0.095	0.100	0.390	0.095	0.100	0.390	0.488	0.000	0.000
fta	0.576	0.501	0.387**	0.576	0.501	0.387**	0.463***	1.256***	0.364***
	0.956	1.141**	1.930***	0.956	1.141**	1.930***	1.004***	0.936***	1.147***
comlang_off	0.118	0.013	0.000	0.118	0.013	0.000	0.000	0.000	0.000
	1.335	-0.480	0.180	1.335	-0.480	0.180	1.392***	-0.365	1.933***
frac_h	0.409	0.476	0.794	0.409	0.476	0.794	0.002	0.028	0.000
	0.279	-1.844**	-0.702	0.279	-1.844**	-0.702	0.578	-1.986***	-0.378**
frac_p	0.783	0.010	0.332	0.783	0.010	0.332	0.052	0.000	0.009
	-0.784	-0.515	-0.105	-0.784	-0.515	-0.105	-1.083***	-0.107	-0.722***
colony	0.377	0.560	0.894	0.377	0.560	0.894	0.000	0.543	0.000
	-1.253***	-0.835***	-0.714***	-1.253***	-0.835***	-0.714***	-1.089***	-0.860***	-0.856***
ldistw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65	-0.109	-0.211	0.265	-0.109	-0.211	0.261**	0.129***	-0.065
llangdist	0.530	0.604	0.366	0.530	0.604	0.366	0.011	0.006	0.193
	0.034	0.003	0.027	0.034	0.003	0.027	0.010	-0.087	-0.068***
year	0.126	0.879	0.202	0.126	0.879	0.202	0.503	0.000	0.000
	-65.391	-7.054	-57.666	-65.391	-7.054	-57.666	0.000	171.098	130.266
_cons	0.128	0.858	0.168	0.128	0.858	0.168	0.000	0.000	0.000

Table 10. 5 Bogor Member Countries (Home Country)

Variable	OLS			Random Effect			GLS		
	(1)	(2)	(3)	(1)	(2)	(3)	(1)	(2)	(3)
lgdp_h	0.283	0.930***	0.265	0.283	0.930***	0.265	0.216	0.983***	0.475**
lpop_h	0.445	0.003	0.195	0.445	0.003	0.195	0.576	0.001	0.040
lgdp_p	1.015**	0.502	0.963***	1.015**	0.502	0.963***	1.167***	0.573	0.992***
lpop_p	0.020	0.200	0.001	0.020	0.200	0.001	0.007	0.072	0.000
area	1.106***	1.091***	1.268***	1.106***	1.091***	1.268***	1.147***	0.955***	1.600***
en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wto_h	-0.514***	0.152	-0.351	-0.514***	0.152	-0.351	-0.436***	0.285***	-0.297***
fta	0.005	0.486	0.153	0.005	0.486	0.153	0.000	0.000	0.000
comlang_of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rac_h	0.937	0.056	0.668	0.937	0.056	0.668	0.250	0.000	0.161
frac_p	0.754	2.284***	1.651**	0.754	2.284***	1.651**	0.602***	3.017***	1.457***
colony	0.229	0.000	0.033	0.229	0.000	0.033	0.001	0.000	0.000
ldistw	(omitted)	3.833	0.000	(omitted)	0.000	0.000	(omitted)	(omitted)	(omitted)
llangdist	0.935	0.009	0.267**	0.228	0.009	0.267**	0.520***	0.937***	0.122
year	0.230	0.956	0.027	0.230	0.956	0.027	0.000	0.000	0.177
_cons	0.653	0.510	0.361	0.653	0.510	0.361	1.390***	-0.139	0.545***
	0.375	0.445	0.656	0.375	0.445	0.656	0.000	0.268	0.000
	2.423	-1.979	2.985**	2.423	-1.979	2.985**	2.175***	-0.935***	3.438***
	0.154	0.056	0.011	0.154	0.056	0.011	0.000	0.000	0.000
	0.821	2.140**	-0.127	0.821	2.140**	-0.127	1.634***	2.295***	-1.128***
	0.433	0.037	0.914	0.433	0.037	0.914	0.000	0.000	0.000
	-0.367	-2.329**	0.281	-0.367	-2.329**	0.281	-1.431***	-1.821***	-0.435***
	0.673	0.012	0.781	0.673	0.012	0.781	0.000	0.000	0.005
	-1.353***	-0.232	-0.386	-1.353***	-0.232	-0.386	-1.278***	-0.018	-0.538***
	0.000	0.468	0.326	0.000	0.468	0.326	0.000	0.778	0.000
	0.243	-2.241***	-0.079	0.243	-2.241***	-0.079	0.034	-2.158***	0.695***
	0.583	0.000	0.866	0.583	0.000	0.866	0.765	0.000	0.000
	0.010	-0.004	0.107***	0.010	-0.004	0.107***	-0.012	-0.044***	0.042**
	0.706	0.868	0.000	0.706	0.868	0.000	0.572	0.008	0.022
	-14.711	0.000	-220.000	-14.711	0.000	-220.000	28.528	79.957	-90.988
	0.769		0.000	0.769		0.000	0.508	0.013	0.012

* Source: 저자 자체 작성

References

- Alberto A., Arnaud D., William E., Sergio K. and Romain W. (2003),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2), 155-194.
- Andersen, H., and Rasmussen, E.S (2004), "The role of language skills in corporate communication", *Corporate Communi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9(2), 231-242.
- Anderson, J. E. and E. van Wincoop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170-192.
- APEC (2010), Progressing towards the APEC Bogor Goals: Perspective of the APEC Policy Support Unit, APEC Policy Support Unit.
- Barner R. and Aarnio, C. (2011), "Shifting the faultlines of language: A quantitative functional level exploration of language use in MNC subsidiar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46(3), 288-295.
- Chiswick B.R. and Miller P.W.(2005), "Linguistic distance: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distance betwee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6(1), 1-11.
- Harzing and Feely(2008), "The language barrier and its implications for HS-subsidary relationships", *Cross-cultur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5(1), 49-60.
- Kim, M.H. and Lee, H.H. (2010),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factors determining proficiency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 cross-country analysis", *Applied Economics*, 42 (18), 2347-2364.
- OECD (2010), Progress toward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by Industrialized APEC Economies, OECD.
- Snow M. S. (1998), "Economic statistical and linguistic factors affecting success on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OEFL)",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0 (2), 159-172.
- Vaara et al.,(2005) "Language and the circuits of power in a merging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2(3), 595-623.
- Wright, C., KumagaiF., and Bonney, N. (2001), "Language and power in Japanese transplants in Scotland", *The Sociological Review*, 49(2), 236-253.